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한학기 어학연수)

인 적 사 항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학교명	빅토리아 대학교
	파견시기	2026.03~2026.07	파견 기간	4개월
파 견 정 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ELME	한 달 간 진행되는 영어 프로그램	
		ELPI	3개월 간 진행되는 영어 프로그램	

I.파견대학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1. 파견 대학 소개

빅토리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Victoria)는 캐나다의 명문대 중 가운데 하나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함께 서부를 대표하는 3개의 대학 가운데 하나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 위치한 UVic에는 10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을 포함하여 2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위키백과 빅토리아 대학교(캐나다) 문서, 빅토리아 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2. 파견 전 절차

- ① (10월) 현지 담당자(유학원 분)에게 연락 받음 + 이메일로 대략적인 일정 안내 (10월)
- ② (11월) 개인적으로 비행기 예약
- ③ (12월) 홈스테이 지원서 제출
- ④ eTA 신청
- ⑤ (12월) 수업료 1차 보증금 송금
- ⑥ UVIC에서 첫 프로그램 OT 관련 메일 받음
- ⑦ (1월) 홈스테이와 연락
- ⑧ 2차 수업료 송금
- ⑨ (2월) UVIC 아이디 등 학교에서 보낸 메일 확인하고 이행
- ⑩ (2월 말) 해외 장기 체류 보험 신청, eSIM 등 통신 문제 해결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체
험
수
기

따로 수강 신청 없이 유학원 측에서 안내하는 대로 금액을 송금했다. 1개월 프로그램과 3개월 프로그램으로 총 두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미리 제출한 홈스테이 지원서를 통해 배정된 집에 머무른다. 홈스테이 요금은 매달 대면으로 지불한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ELME (3월)

월~목 / 9:00~12:30, 13:30~15:00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과목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주 월~목요일에 진행된다. 100부터 600까지의 레벨이 있으며 매일 두 개의 수업을 듣는다. 수강 기간이 짧아 밀도가 높은 수업은 아니었다. 영어 캠프처럼 중요한 문법이나 활동만 짚어서 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업이 모두 끝난 뒤 conversation club이라는 추가 활동을 제공한다. 티셔츠에 그림 그리기, 사람 빙고 등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수업 없이 다운타운 투어, 클라이밍, 요가, 퀴즈 등 조금 더 적극성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월에는 낯선 문화권의 친구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ELPI (4~6월)

월~금 / 오전반 8:30~12:45, 오후반 13:00~17:15

석 달 간 진행되는 수업이다. 실력에 따라 레벨이 나뉘고 100, 200은 오전반, 300부터는 오후반에 배정된다. 리딩/리스닝 수업, 라이팅/스피킹 수업, 각 2시간씩 두 개의 수업을 하루에 듣는다.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간단한 문법 외 원어민이 자주 쓰는 단어의 조합, 북 클럽, 스피치 등 더 다양하게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수요일의 conversation club, 금요일의 액티비티는 비슷하게 제공되나 시간이 달라진다. ME보다 학생의 수가 훨씬 많으며 그중 일본인과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ME에 비해 멕시코, 태국, 방글라데시 등 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정규 수업은 주 4일이며, 오전반은 월요일, 오후반은 금요일에 추가 수업이 진행된다. Developing Discussion Skills, Basic Grammar Boost라는 두 개의 기초 수업이 진행된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ME가 진행되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영어 실력을 본격적으로 늘리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눈에 띄는 영어 실력 변화가 있진 않았다. ELPI에 비하면 준비운동 수준이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질 때쯤 프로그램이 끝난다.

ELPI에서는 더 다양한 나라의 학생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어뿐 아니라 반 친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UVIC English center 홈페이지에 하나의 레벨을 넘기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 만큼 ELPI에서는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 기

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연습시킨다. ELPI에서도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지만 가볍게 복습 하듯 넘어간다. 실제 문법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 말하기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다.

ME에서는 기초적인 문법(현재시제, 미래시제, 과거, 현재완료, IF절) 등을 배우고 그걸 대화를 통해 익숙해지게 하고 발표하게 시켰다면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단순 문법을 익히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함께 쓰이는 단어의 조합collocation이라든지 단순 ppt 발표가 아닌 스피치를 하는 등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수업 시간 외에 따로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ELPI에서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영어 회화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게 되었다. ELPI에서 금요일이나 월요일마다 정규 수업을 대신해 두 개의 특별 수업을 하는 것도 인상 깊었다. 정규 수업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초 문법 복습 등 추가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

3. 학습 방법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업 자체가 새로운 문법이나 표현을 익히고 그것을 실제 여러 활동을 통해 익숙해지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영어 실력이 늘어갔다. 특히 발표 수업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대본을 쓰고 실제로 보지 않고 말하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늘고 있음을 체감했다. 그리고 확실히 많이 말해본 것일수록 입에서 능숙하게 나온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 묻는 '전공이 뭐예요?', '얼마나 여기 머물렀어요?'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최대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러한 기회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Learning Center를 방문해 봉사자들과 대화하거나 지역 로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물가는 비싼 편이다. 특히 2026년 3~7월은 전쟁으로 인해 환율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라 특히나 더 비쌌다. 미리 확인하고 환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꽤 자주 있다. 그러나 캐나다 사람들은 우산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리 챙겨오는 것이 좋겠다. 3월에도 겨울처럼 추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따뜻한 옷을 챙겨오는 것이 좋겠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① 식사

거의 레토르트 식품인 것 같다. 한식이라고 하면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등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일상적으로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홈스테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거의 레토르트를 조합한 음식들이었던 것 같다. 마트에서 산 라자냐, 감자와 파스타를 조리해 주는 등 정말 요리를 하는 것은 드문 것 같다.

② 의료

학교에서 프로그램 초반에 Guard.me라는 보험 카드를 설치하게 한다.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불했던 것 중 하나이다. 병원을 가는 절차나 기준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니면 홈

스테이나 학교 측에 물어보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학교 측으로 청구하면 비용 해결해 준다고 설명 들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 등은 현지 것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③ 통신

한국에서 미리 해결하고 가야 한다. 유심이 아닌 eSIM을 신청했다. 인터넷에 캐나다 유심, 이심 등 검색하면 나오는 업체 중 후기가 있고,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지 조건을 따져 연락했다. eSIM 발급과 함께 캐나다에서 사용할 통신 요금제도 같이 설정했다. 나의 경우 Koodo 통신사의 50달러, 데이터 60GB + a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신청했다. 한국 통신사 요금은 장기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④ 은행

통신 요금을 캐나다 계좌에서 자동이체 했어야 할인이 되어서 캐나다에 도착한 뒤 TD 은행에서 계좌를 신청했다. 학생 비자가 없어서 일반 계좌로 만들려고 했는데 은행 측에서 학생 계좌로 해주었다. 캐나다에서는 계좌 종류에 따라 유지비가 들어가고 출금할 수 있는 횟수, 금액이 정해지는데, 학생 계좌는 크게 제한이 없어 좋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등 현지 OTT 서비스 등을 결제했는데 캐나다 카드로만 결제 수단을 등록할 수 있어서 통신비 이외에도 유용하게 사용했다.

⑤ 교통

학교 측에서 각 프로그램 초반에 대면 OT를 진행하며 버스 카드를 나눠준다. 그것을 등록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빅토리아 내의 버스를 제한 없이 탈 수 있다. 프로그램 비용에 미리 포함되어 지불하였다.

⑥ 보험

출국 전 카카오 보험의 '해외 N달 살기 보험'을 신청했다. 프로그램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7월 말까지로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하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만큼 크게 시끄럽지 않고 잔잔한 도시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재미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도착한 지 약 한 달이 지나니까 더는 특별히 할 것이 없었다. 이후에도 매일 즐겁게 보내려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피크닉을 자주 가거나, 빅토리아 구석구석 가게를 탐방하는 선택지가 있다. 본인이 외향적이라면 낯선 캐나다인을 만나는 등 혼자 나가보라고 조언하겠지만, 아니라면 조용히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재밌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다. 가까운 작은 도시로 시드니, 나나이모, 큰 도시로는 밴쿠버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밴프로 떠나거나 미국 시애틀을 방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사이의 약 1주일 여유 동안 미국 LA를 다녀오는 친구도 있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사전 준비>

항공권	1,541,400 KRW
보험료	3월 1일~7월 31일 200,000 KRW

eTA	7 CAD (7500 KRW)
프로그램 비용	1,150 CAD (1차 송금: 보증금), 6378 CAD (2차 송금)

TUITION & FEE SUMMARY

Monthly English Program	March 2 - March 27, 2026	\$1,850.00
UVSS Fee		\$20.00
Athletics & Recreation Fee		\$50.00
guard.me Medical Insurance		\$72.00
Bus Pass Fee		\$81.00
Intensive English Program (ELPI)	April 7 - June 30, 2026	\$4,500.00
Bus Pass Fee		\$81.00
UVSS Fee		\$60.00
Athletics & Recreation Fee		\$150.00
guard.me Medical Insurance		\$214.00
Application fee (non-refundable fees)		\$150.00
Homestay application fee		\$300.00
Total Due:		\$7,528.00

(ME + ELPI 전체 프로그램 비용)

<실제 생활비>

	개인 경비	홈스테이	통신비	비고
3월	1754 CAD	1350 CAD	76 CAD	밴쿠버 여행 제외 금액
4월	1254 CAD	1350 CAD	45 CAD	시애틀 여행 제외 금액
5월	714 CAD	1350 CAD	45 CAD	
6월	1793 CAD	1350 CAD	45 CAD	귀국 기념품 제외 금액

<여행>

	숙소 + 페리	개인경비	비고
밴쿠버(3월)	360 CAD	271 CAD	학교 프로그램
시애틀(4월)	809 USD	785 USD	ESTA: 40 USD
밴쿠버(7월)	934 CAD	547 CAD	

기념품	1094 CAD
-----	----------

<합계>

9,686,668 (사전 비용) + 12,027,206 (실제 생활비) + 4,758,778 (여행) + 1,182,614 (기념품) = 27,655,266
4개월 약 2천 7백만원 사용

*1 CAD는 나의 평균 환전 금액인 1,081원, 1 USD는 1,509원으로 계산했다.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확실히 매일 외국어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점점 영어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게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등 영어로 대화해야 할 때 긴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패턴을 익히게 되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즉흥적인 회화에는 약해 여전히 긴장은 하지만 습득한 영어 패턴을 조합해 말하며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대학에서 여러 명 온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선대에서 혼자 온 것이라 처음이지만 의지할 수 없이 부딪혀봐야 하는 것들이 늘어 홀로서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등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약간 잡은 영어 학습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어 공부를 계속하려고 한다.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토대로 비슷한 루틴을 실행해 보려고 한다. 토익보다는 오픽 등 말하기 시험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 오픽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비록 캐나다를 짧게 체험한 것이 전부이지만 확실히 한국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외 취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한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빅토리아는 장단점이 꽤 뚜렷한 곳인 것 같다. 조용하고 친절한 도시라 지내기 좋지만, 밴쿠버처럼 활동이 많지 않다. 검증된 교육 체계와 홈스테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캐나다 현지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고 일본 친구들과 거의 함께 지낸다.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조선대의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같은 외국 학생의 적응을 돕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고, 3~5월은 특히 방학 시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등도 애매하다. 스포츠 클럽 등도 활동 기간이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아보면 겨우 4개월 동안 캐나다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꽤 이루기 힘든 목표였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UVIC 영어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이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휴학하고 개인적으로 온 친구들이 몇 있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교육 기관이나 실제 캐나다에 사는 사람처럼 섞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홈스테이 관련해서, 지원서를 제출할 때 학교에서 1시간 거리 안으로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학교까지 한 시간 걸리는 집에 배정되었다. 내가 지내던 곳은 특히 버스 위치도 좋지 않아 학교에 가려면 시내를 거쳐서 돌아가던지 환승해야 해서 매우 불편했다. 빅토리아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고 버스가 제시간에 오는 일이 적다. 캐나다에 도착하고 초반에는 밖에서 데이터를 켜는데도 인터넷이 안 되는 일이 있고 버스 전광판도 없어서 핸드폰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 불안했고, 이후에도 이동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집을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달라고 지원서에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4. 기타사항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홈스테이에서 제공한 방



학교 가는 날 점심



저녁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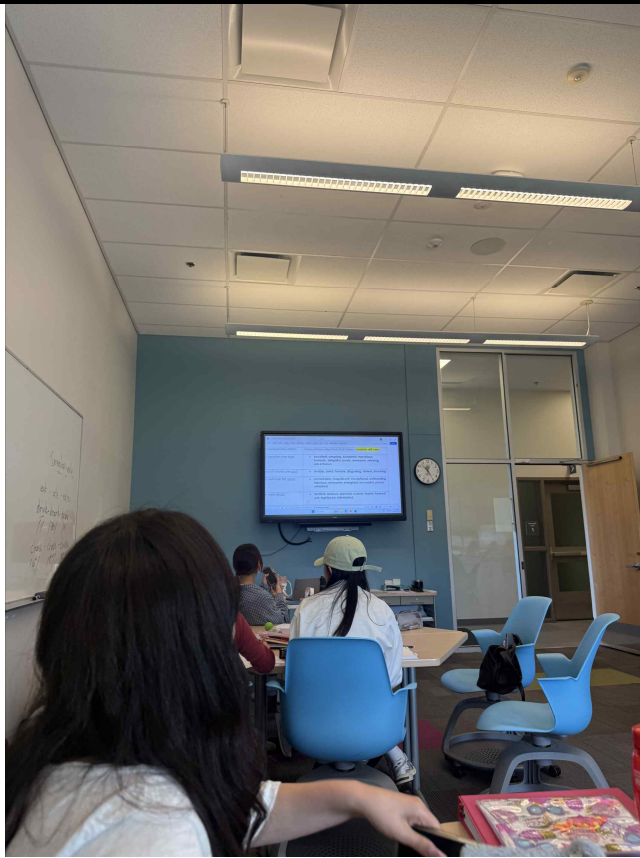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도서관



빅토리아 오페라 공연



앰프레스 호텔 애프터눈 티



교실



오크베이 나이트 마켓



쇼핑몰에 단기 설치된 놀이공원



시드니 풍경



부차드 가든



펍에서 월드컵 경기 시청



밴쿠버 캐나다 데이